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슬픔 어디 전디리’

봄이면 무작정 길을 나서도 여기 저기 연두빛이 가득하다. 섬진강에 머물렀던 봄은 어느덧 전라북도 진안 깊은 산골짜기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날 생각나는 두보의 시다.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만 꽃잎 흩날리니 슬픔 어이 전디리’ 견디기 힘든 봄 날이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봄 풍경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광주에서 출발해 담양, 남원, 장수, 무주를 거쳐 도착한 곳은 진안이다.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은 산이 깊어 봄이 늦게 오는 지역이다. 가는 길마다 산벚꽃이 아름다워 길을 가다 멈춘다. 진안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벚꽃은 꽃보라가 되어 산화한다. 꽃잎 흩날리니 슬픔도 깊어진다. 진안으로 가는 길에 올리브색을 담은 나무를 눈이 짓무르도록 봐도 질리지 않는다. 4월은 잔인한 달인가 보다. 가슴

속에 묻혀 있던 슬픔이 짝이 나뭇 돌아난다. SNS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세월호의 아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팽목항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세월호가 10년이 되었다. 2014년에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설마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인가? 의아해 하면서 안타까운 청춘을 잃어야 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과 작별한 그들은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다. 작가 김훈은 슬픔도 풍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풍화된 슬픔도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 있다가 그때가 되면 돌아나고 있다. 진안 가는 길에 꽃잎이 산화하는 슬픔과 세월호의 슬픔을 구분하지 못하며 울음을 머금고 꽃길을 달리고 달린다. 진안 천반산 가막리들의 봄은 이미 와 있었다. 물 오른 나무에 산벚

꽃이 벚짐이 되어 온 산을 뒤덮고 있는 풍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산벚꽃이 어우러진 산 아래 강변에는 물이 버드나무를 감싸고 있었다. 가막리들을 걸었다. 햇살이 강변에 내리쬐어 조팝꽃, 민들레도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막리들 25분 정도 걸은 강변길에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과 들, 정적만이 함께 한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생명은 움트고 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고진 속보따리를 짊어진 노부부를 만났다. 강변 들판에 새로 돌아난 모든 것들은 식량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된 것이다. 천반산을 바라본다. 햇살이 더 머물다 간 곳에는 봄이 한창이지만 햇살이 덜 던 곳에는 봄이 멈추어 있다. 몇 해 전부터 봄이 되면 몸이 먼저 길을 안내하는 천반산 가막리들에서 있지만 한해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슬픔도 풍화되는 천반산 아래가

막리들 봄 길을 걷는다. 세월호의 아픔을 되새기며 걷는 길에서 그 슬픔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을 알기에 길을 걸으면서 봄을 맞는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고단하며 쓸쓸해지나보다. 천반산은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산이다. 산이 강을 안고 강이 산을 안는다. 산자락마다 마을이 숨어 있다. 숨어 있는 강변에 물나무가 피어오르고 봄은 저만치 비껴 서 있다. 천반산 가막리들에 인공이 펼쳐 놓은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물길을 잡아 농사를 짓게 하려고 했던 곳에 담뱃뿔을 담은 소나무가 이 산하를 지키고 있다. 천반산 가막리들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을 담기에 4월의 햇살이 강하다. 4월에 이렇게 따뜻한 날은 기상센터 통계에 세 번째로 기록되었다. 작년만 해도 바람막이 외투를 걸쳐야 했던 날씨인데 4월 11일은 일명 웃을 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4월에 바람이 이는 곳에 그들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멈춘다. 4월의 봄은 잔인하다. 일장춘풍의 봄을 보내야 하며 세월호의 아픔을 견뎌야 한다. 봄이 가는 것처럼 세월호의 아픈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를 바라지만 4월이 되면 새록새록 돌아와 고 가야 할 아픔이다. 하오가 되어 광주로 오기 위해 진안에서 장수로 빠져나오는 벚꽃 가로수 길에 벚꽃잎이 휘날린다. 휘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면 ‘안녕’ 봄 인사를 한다. 꽃잎이 날려서 슬픈지 세월호의 아픈 상처가 돌아나서인지 가슴이 아리다.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 세월호 추모 시집에 들어 있는 시 한 편이다. ‘그 언니는 단원고 학생이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 했는데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오늘은 말 거는 연습을 해야겠다.’ 봄날의 슬픔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농기계 저속차량 운전 사고 예방하자



최근하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또한 일반자동차가 아닌 단순 농기계로만 인식하여 전조등·미등(브레이크·차폭등)도 없이 운행되는 농기계가 많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등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농기계 관련 사고의 원인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 등 기상 여건, 조작 미숙, 야간 운행 시 표시등 미부착 등 안전의식 부재, 커브길 중앙선 침범·자동차 운전자들의 과속 및 방어운전 불이행, 음주운전 등의 사고 요인이 있다. 사고 장소는 지방도·국도, 마을 진입로나 교차로·농로등 어디서나 자주 발생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가 외부로 튕겨져서 농기계 운전자들이 보진탕·농기계에 끼임 사고 등 중상을 입거나 크게는 사망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농기계 운행 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용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야간 운행을 자제하고 야간 운행 전 반드시 적재할 후미에 야광 반사경 등을 부착하고 농기계 운전자의 옷가지 등은 야간에 차량 전조등으로부터 잘 보이는 야광으로 된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은 농기계가 빈번하게 운행하는 국도·지방도로 특히, 커브길에서는 감속운행 및 방어운전과 전조등을 어두워지기 전 미리 켜서 농기계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기계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안전운전으로 농기계 저속차량 운전 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주민·행정기관이 하나 되어 산불 예방 총력을



한선근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4월 들어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하는 등 건조주의

보 발령과 산불 위험지수 상승으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급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5월까지의 산불 발생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발생의 34%가 입산자 실화 원인이며 불철에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를 넘는다고 한다. 화재의 대부분 원인은 인재(人災)로서 불철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등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주의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첫째 산에 올라갈 땐 성냥,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않는다. 운전할 때도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산 인근에서는 논·밭두렁과 영농 폐기물을 태워선 안 된다.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 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이로 인한 곤충을 없애버려 병해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셋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

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해당 관서에 허가받아야 한다. 넷째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초기 화재 발생 시 외부 등으로 덮여서 진압하면 된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더해지면 진화를 위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때에 따라 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나 되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amaeil.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상무 381-5310 서부 651-0004 송암 362-4102 농성 362-4102 진월 671-7276 봉선 675-5530 중앙 521-5640 중흥 433-1503 양산 574-3745 문암 521-4270 오치 261-9461 문흥 261-9462 일곡 573-3200 동운 525-8994 두암 266-1920 철단 971-1920 신창 955-0451 월곡 941-9174 송정 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 010-8718-1234 순천 010-9656-1383 광양 010-9656-1383 장흥 010-5665-8354 담양 010-9067-4076 곡성 010-5602-1785 구례 010-8597-0053 보성 010-3626-4776 화순 010-2430-5055 영광 010-9860-5489 완도 010-5066-4708 함평 010-3095-5842 영암 010-4604-3742 무안 010-2050-0136 진도 010-8525-4567 해남 010-3471-6542 광산 010-7613-4320 고흥 010-4644-8383